

# 2023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 연번 | 일시        | 장소                        | 참석인원                        |            |             |                | 회의형태 |     |    |
|----|-----------|---------------------------|-----------------------------|------------|-------------|----------------|------|-----|----|
|    |           |                           | 시청자<br>위원<br>(참석인원/<br>총인원) | 방송국        |             | 총<br>인원<br>(명) | 대면   | 온라인 | 서면 |
|    |           |                           |                             | 경영진<br>(명) | 경영진<br>외(명) |                |      |     |    |
| 1  | '23.6.27. | 대전MBC<br>4층 회의실<br>(대면회의) | 8/10                        | 4          | 2           | 14             | ○    |     |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박주영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문은선 취재편집부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br>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br>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br>(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        | 5      | 6  | -             | 3  | 14 | -          | 14 |

### 나. 사업자 반영

| 구분 | 수용 | 의견참고 | 반론 | 합계 |
|----|----|------|----|----|
| 건수 | 14 | -    | -  | 14 |

### 다. 전월(5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월    |
|----|--|---|--------|
| 보도 | <b>&lt;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보도&gt;</b><br>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범죄인데 공무원의 추가 처벌이 단순히 공무원 이용 시설 1년 동안 이용 못하게 하는 형태의 솥방망이 처벌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도 필요  | 스콜존 음주운전 관련 규정들에 대한 실행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한 뉴스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어린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맹점들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도해 나갈 예정<br><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보도 | <b>&lt;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도&gt;</b><br>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관련 시설의 의미와 대전 지역에 있는 만큼 그동안의 과정과 이후에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까지 심층 취재 형태로 정리를 해주었으면 함<br>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 보도는 부정적인 기사 일색인데 의료진들의 각오 등 긍정적이고 화합하는 기사도 방송해 주었으면 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과 문제를 보도해 왔는데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어떤 문제점만 발견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중부권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장애 아동들에 최소한의 시스템이 마련된 부분, 의료진들의 사기진작 부분들까지 관심을 갖고 보도할 예정<br><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보도 | <b>&lt;JMS 보도 영상 관련&gt;</b><br>JMS 목사 사건 보도에서 그 날 검찰에 송치되는 날이었는데 타 방송은 송치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대전MBC는 예전에 설교했던 장면을 영상으로 처리했는데 현실감이 떨어져 보였음.   | JMS 검찰 송치 자료 화면 관련해서 실제 JMS 출두할 때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 자료 화면들을 쓰면 좋는데 편집실 쪽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적합한 화면이 안 나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음<br><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보도 | <b>&lt;전세사기 관련 보도&gt;</b><br>대전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인 설명은 없음. 보도의 포커스 자체가 피해자가 많으니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알겠지만 대전 시민 입장에서 왜 대전이 많은 건가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                  | 대전하고 세종은 근래 수년간의 집값 상승이 가팔랐고, 세종은 갭 투자도 많았음. 그 피해가 누적 됐다는 유형에 대한 분석보도가 있었는데 주의해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함. 여야 간에 법제화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관심 갖고 보도해 나갈 예정<br><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보도 | <b>&lt;산불 이후 장마철 대비 대책 보도&gt;</b><br>장태산 산적동 산불로 인근 사회복지 시설의 플라스틱 배수구가 탄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장마철 우려되는 부분들을 짚어주었는데 이후 행정기관의 대책도 추가됐으면 함.   | 화재 이후에 산사태 등 2차 피해들이 우려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있음. 생활 주변의 작은 문제들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도 진행 예정<br><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보도 | <b>&lt;과학 관련 기획 보도&gt;</b><br>과학교보도에 있어서 과학의 도시라는 게 대전의 정체성임. 과학 50년이 있고 대덕이 있지만 거기에 대전이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보도해 나가야 될 부분임. 대덕50주년 관련해서 미래를 진단하는 뉴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음<br><b>&lt;23. 6월 조치&gt;</b> | 과학교보도에 있어서 과학의 도시라는 게 대전의 정체성임. 과학 50년이 있고 대덕이 있지만 거기에 대전이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보도해 나가야 될 부분임. 대덕50주년 관련해서 미래를 진단하는 뉴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음<br><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  |   |        |
|----|--|---|--------|
| 교양 | <b>&lt;시시각각- 피해 예방책&gt;</b><br>전세 사기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은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함. 계약을 체결할 때 뭘 봐야 하는지는 사실 언급이 없었고 막판에 시간이 쫓기시다 보니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넘어갔었는데 끝내 궁금증으로 끝나서 아쉬웠음. |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2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뤄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 있음. 다른 콘텐츠에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만 따로 모아서 어떤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음 <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교양 | <b>&lt;시시각각-패널구성&gt;</b><br>전세사기 관련해서 실제로 행정기관 관계자 예를 들면 대전시청에서 나와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는 얘기도 같이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함.   | 행정관청에서 출연해서 실효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 실효적인 부분은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로 전담 부서가 어디냐 라는 논란이 있어서 핑퐁계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음 <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교양 | <b>&lt;시시각각-자막 및 수어방송&gt;</b><br>토론이 아닌 나열식 구성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막 처리가 없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언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음. 홈페이지에 <시시각각> 다시보기에 수어방송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수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함.                                   | 나열식 주장만 연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긴 한데 화끈하게 막 볼 수 있는 논쟁점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때면 그럴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음. 하지만 전체적으로 견지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함. 수어방송은 재원의 문제로 뉴스만 진행하고 있음. 홈페이지에 시시각각 수어방송 표시는 잘못된 것임. 정정하겠음 <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교양 | <b>&lt;문화예술 관련 방송&gt;</b><br>문화예술 관련해서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 또는 향유하는 사람까지 고려하면 관련자들이 많음. 코로나 때만 잠깐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슈가 안됨. 일이 타졌을 때만 다루지 말고 문화예술의 안전망은 잘 되어 있는가,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가끔씩 다루주었으면 함.  | 문화예술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나름 고민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교양 | <b>&lt;시시각각-1인 가구 관련&gt;</b><br>1인 가구 관련 청년 문제, 고독사 등 폭넓게 다뤄서 좋았는데 대전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니 만큼 대전 특색에 맞는 분석과 구체화 또는 특점으로 구성했으면 함  | 대전이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실효적 논의가 될 수 있게 콘텐츠 구성을 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음 <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기타 | <b>&lt;유튜브 콘텐츠 관련&gt;</b><br>유튜브에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나운서와 기자가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짧고 분명하게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음. 기회가 된다면 데스크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제작했으면 함                                   | 뉴스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형적으로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봤는데 담당하는 인턴들이 나가고 새로운 인턴들이 들어와서 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음 <b>&lt;23. 6월 조치&gt;</b>   | '22.5월 |

|               |   |   |        |
|---------------|---|---|--------|
| 기타<br>(시청자의견) | <b>&lt;시청자의견 처리 관련&gt;</b><br>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제보는 중요한데 답글에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끝임. 시청자 입장에서 공익제보를 한건 수년간 피해를 보고 불편한 사항을 얘기한 것임.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떻게 보도했다 또는 처리됐다 라고 해주셔야 할 것 같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발 빠르게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 공익제보 의견은 28일(일) 오후 4시 휴일에 접수했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해당 부서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빠른 답변을 한 것.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뉴스 발류에 대한 판단시간도 필요하고 기자들이 많다면 모든 제보들을 다 처리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겠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임. <b>&lt;23. 5월 조치&gt;</b> | '22.5월 |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청 내용 | 조치 내용   | 조치일자 | 비고 |
|-------|---------|------|----|
|       | 해당사항 없음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 성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비고<br>(임기)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 평가기준                            | 해당여부 |
|---------------------------------|------|
| 2023년 6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    |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 구분   | 성명  | 전·현직                   | 추천단체               | 추천부문   | 비고 (임기)*          |
|------|-----|------------------------|--------------------|--------|-------------------|
| 위원장  | 손병우 | 충남대학교<br>언론정보학과 교수     | (사)한국언론정보학회        | 언론단체   | 23.05.01~25.04.30 |
| 부위원장 | 박주영 | 대전지방변호사회<br>부회장        | 대전지방변호사회           | 변호사단체  | 23.05.01~25.04.30 |
| 위원   | 마정미 | 한남대학교<br>정치언론학과 교수     | 충청언론학회             | 언론단체   | 22.05.01~23.04.30 |
| 위원   | 김정동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br>사무처장     | 대전참여자치<br>시민연대     | 소외계층대변 | 22.05.01~23.04.30 |
| 위원   | 박미숙 | (주)비앤비컴퍼니<br>대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br>대전지회  | 경제단체   | 22.05.01~23.04.30 |
| 위원   | 장래숙 | 대전광역시<br>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대전광역시청소년<br>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단체  | 23.05.01~25.04.30 |
| 위원   | 김영진 |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br>이사장      | 대전청년내일센터           | 소외계층대변 | 23.05.01~25.04.30 |
| 위원   | 이인복 | 원도심문화예술행동<br>사무국장      | 원도심문화예술행동          | 문화단체   | 23.05.01~25.04.30 |
| 위원   | 윤지석 | 대전광역시의회사회<br>부회장       | 대전광역시의회            | 과학기술단체 | 23.05.01~25.04.30 |
| 위원   | 이진희 |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br>협회장    | 대전광역시<br>사회복지사협회   | 인권단체   | 23.05.01~25.04.30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보도  | <b>&lt;해맑음센터 폐쇄 관련 보도&gt;</b><br>대전에 학교폭력 치유센터인 해맑음 센터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폐쇄되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계속 지속적인 취재를 해 주셨으면 함                                    | 회의록 첨부 | ○   |    |    |
| 보도  | <b>&lt;반지하 침수 예방 보도&gt;</b><br>서울 반지하 대책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전도 비슷한 상황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밀집 지역의 반지하 침수에 대해 지자체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7월에 이와 관련한 관심 있는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 회의록 첨부 | ○   |    |    |
| 보도  | <b>&lt;전안 학폭 신고건 심의 예정 보도&gt;</b><br>피신고 학생의 반론만을 다루고 보도가 끝났는데 이전에 처음 보도할 때 피신고인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를 한건 아닌지 아쉬움이 있어                      | 회의록 첨부 | ○   |    |    |
| 보도  | <b>&lt;세종 정부청사 만취운전 보도&gt;</b><br>법을 뉴스는 여러 번 보도가 되면 앞 보도를 봤다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붙이기만 하는데 일반 시청자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앞 보도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었으면         | 회의록 첨부 | ○   |    |    |
| 보도  | <b>&lt;소청심사위 60주년 기념식 보도&gt;</b><br>뉴스 첫 화면에 세종시장이 한참 나오고 소청심사위원장은 거의 뒷부분에만 나오는데 화면 구성이 아쉬웠음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b>&lt;시사프로그램 방송 계획&gt;</b><br><시시각각> 방송이 끝나고 이후에 시사프로그램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MBC라는 이미지가 있으니 그 비전이나 계획을 들여보고 싶음.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b>&lt;다큐 제작 계획&gt;</b><br>다큐 <장날>이 5월에 끝나고 6월에는 <시시각각>과 <장날>이 다 끝났음. VOD에 보면 2월 이후에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지 않았는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음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b>&lt;오늘M-블랙 화면 노출&gt;</b><br>세종수목원 아라홍련을 다룬 꼭지 방송중 중간 중간에 까만 화면이 노출됨. 생방송이 아니라 리포트였기 때문에 편집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편집을 꼼꼼하게 해주길 바람.                 | 회의록 첨부 | ○   |    |    |

2023년 6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교양  | <b>&lt;다큐 장날&gt;</b><br>시즌2가 생긴다면 장날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추가로 다뤄주었으면 함. 또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어른들이 생각하고 회상하는 어릴때의 장터모습도 그려주길 바람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b>&lt;오늘의 면접&gt;</b><br>직원분들 인터뷰하는 장면이 너무 경직돼서 당연히 해야 하는 말들로 흘러감. 청년들한테 기업을 제대로 알리려면 소통하듯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함. 자체제작인지 외부제작인지?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b>&lt;연중캠페인&gt;</b><br>연중캠페인 내용이 좋는데 본방을 보지 못하면 홈페이지 다시보거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음   | 회의록 첨부 | ○   |    |    |
| 기타  | <b>&lt;AM방송 중지 안내&gt;</b><br>공지사항에 AM라디오 방송이 중지되었다는 안내문에 앞으로는 FM방송으로만 송출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AM방송을 청취했던 청취자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 건지 중지되었다는 안내는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함. | 회의록 첨부 | ○   |    |    |
| 기타  | <b>&lt;시청자의견 피드백&gt;</b><br>시청자 의견에 올라온 공익 제보를 취재해서 잘 처리한 것 같은데 공익 제보해 주신 분한테 별도의 피드백을 해주셔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면 함                               | 회의록 첨부 | ○   |    |    |
| 기타  | <b>&lt;시청자의견 답글 관련&gt;</b><br>아나운서 실수를 지적하는 시청자게시판 의견 답글을 해당본인이 직접 달았는데 직접 하지 말고 게시판 담당자가 해당자에게 물어본 후 제3자 입장에서 답글을 적어주면 어떨지?                      | 회의록 첨부 | ○   |    |    |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박주영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김환균 사장, 문은선 취재편집부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지금부터 6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고 박주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총 10분 중에 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6월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뉴스투데이 진행자에 대한 불만 1건인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당 아나운서가 답변을 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특별히 없으시면 지금부터 2023년 6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네 벌써 6월이네요.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작년에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회의에 취재부장이 참석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휴가를 갈 때지만 저희는 이 때만 되면 더 열심히 우리 지역 시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해 보니까 익숙해지죠. 시청자 위원이다 생각하면서 TV를 보거나 라디오 듣지 마시고요 그냥 똑같이 들어주세요. 그래야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보다

더 자유롭게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주신 박주영 부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장마다 무더위다 여름 한복판으로 지금 끌려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 MBC뉴스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위원님들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배 위원님들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미숙 위원

저희 회사는 수출이 80%인데 코로나 3년 동안 화상 미팅만 하다가 올해부터 코로나가 풀려서 그동안 미팅을 못했던 거래처를 순회하고 있어요. 확실히 화상으로 하는 것보다 만나서 미팅을 해야지 피드백이 빨리빨리 오고 가고 해서 바이어분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해외 출장으로 그동안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날>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게 시청했는데 각 지역의 5일장이 유서 깊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새롭게 느낌이 와 닿았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유성인데요. 유성 오일장이 100년 넘게 유서 깊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시청하면서 유성 오일장에서 몇십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상인들이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인 정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오일장 상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에게도 레트로 감성이 유행인데 그걸 잘 활용하면 젊은 분들도 그 오일장으로 끌어들여서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대를 이어서 몇 백 년씩 오래된 가게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오일장을 보면서 그래도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몇 백 년 된 가게가 생기고 후손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지사항에 AM라디오 방송이 중지되었다는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FM방송으로만 송출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AM방송을 청취했던 청취자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 건지 중지되었다는 안내는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 사항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동 위원

오염수 관련해서 보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전MBC에서도 사기 사건이랑 연결된 보도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충남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해안가를 끼고 있는 만큼 지역 어민들의 의견들도 취재를 하고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학교 폭력 관련한 관심이나 사회적 문제도 올라오고 있는데 해맑음센터 폐쇄 보도에 있어서 또 <오늘M>에서도 심도 있는 취재까지 이어진 부분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시각각>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후 시사 프로그램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MBC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네 간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정미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6월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점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MBC는 시사 프로그램하고 다큐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사플러스>시절부터 <시시각각>도 굉장히 소중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끊어져서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아마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시는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그 비전이나 계획을 들여보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 <장날>도 끝난 것 같아요. 5월에 끝나고 6월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시각각>도 없고 <장날>도 없고 약간 프로그램이 볼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대전MBC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스페셜 VOD를 보면 다큐멘터리가 2월 이후에는 방송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대덕 특구 50주년 기념 다큐가 있는데 이 것은 아시다시피 10년 전, 20년 전에 만든 다큐를 다시 보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다큐멘터리 한 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품과 자금이 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M>프로그램을 의미 있게 봤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됐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 그리고 전국의 다양한 소식과 이색적인 일상들, 사람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특히 저는 <이슈를 추적한 남자> 코너가 아주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월 8일은 홍성 산불 이재민 관련해서 당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조명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보고요. 6월 14일에 금동 관음보살 좌상 소유권 분쟁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게 2014년 1심은 우리나라에 소유권이 있었다고 했는데 올해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서 일본에 반환해야 된다 라는 이슈를 잘 다루어준 것 같아요. 이게 2월 15일 뉴스데스크에서도 다루어졌는데 뉴스와 다큐 혹은 이런 쪽지에서 뭔가 공조성을 가지고 다루면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의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21일 해맑음센터 학교폭력 치유센터 폐쇄 내용을 봤는데요. 저도 사실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쉼터 혹은 치유 센터가 대전에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해맑음 센터가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폐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다룰 만한 주제다 싶어서 이것도 계속 지속적인 취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월 14일 세종수목원 아라홍련을 다룬 꼭지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까만 화면이 노출됐었습니다.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 리포트였기 때문에 편집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내보내셨는지 편집을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가 몇 건 있었는데 이상하게 5월, 6월에는 시청자 의견이 굉장히 활발하더군요. 아나운서에 대한 그런 지적들도 있었고, 천안 아산역 주차장을 웨딩홀이 선점하고 있다는 공익 제보가 있었고, 6월 23일에 그것을 뉴스로 다뤄주셨더라고요. 이런 공익 제보를 잘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MBC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래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장래숙 위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레트로에 대한 감성들이 살아나서 <장날>을 열심히 봤고요. 당진 장날할 때 찻갈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노인정에 가서 장날 말고 평소 살아가는 모습들을 담아서 정말 좋았어요. 더 된다면 그렇게 장날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 모습을 추가로 다뤄주면 젊은 층도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단체 추천으로 왔기 때문에 청소년 입장에서 얘기하면 6월 26일이 마약 퇴치의 날 이었거든요. 대전역에서 마약퇴치 캠페인을 열었어요.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펜타닐 패치라고 청

소년들의 마약류로 전략한 진통제 패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7월이 되면 방학이 되고 그 다음에 역주변으로 마약이나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나 되면 청소년의 마약이나 도박에 대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시사로 한번 다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영진 위원님 의견 들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과 <시시각각>을 다시 보려고 했는데 없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올라왔는데 끝난 걸 여기에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청자 의견 천안아산역 주차장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시청자 의견으로 올라온 거 보고 MBC가 취재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게 맞으면 공익 제보해주신 분한테 별도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좋은 의미로 올려주신 제보들을 이렇게 잘 취재해서 선기능을 만들어주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MBC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위원회에서 합창단 얘기 해 주셔서 유튜브로 잠깐 찾아봤는데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댓글 반응들도 노래가 진짜 좋다 라고 해서 저도 몇 번 흥얼거렸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오늘의 면접이라고 두 편 올라온 것들 잘 봤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방송 콘셉트들을 잘 도입해서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임팩트 있게 관련 내용들을 콘텐츠로 잘 담아낸 것 같고 지역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에 진행자가 면접을 보는 콘셉트로 나오는 콘텐츠인데 진행자분도 굉장히 워트 있게 잘하셨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스킵하지 않고 다 봤던 것 같고요.

다만 직원분들 인터뷰하는 타이밍이 앞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에 너무 직원분들이 경직된 인터뷰를 당연히 해야 되는 말들을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사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청년분들이 자세히 알려면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듯이 인터뷰하면 콘텐츠가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MBC가 송출하는 건지 아니면 MBC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건지 이게 기존에 MBC에서 내 보냈던 방식하고 조금 달라서 되게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6월에 올라온 MBC 보도 잘 봤고요. 장마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를 해주셨는데

대전 충남 세종 지역들이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와 관련해서 다룰 때 농촌 지역 관련해서 다루면 당연히 도심 지역 관련 이슈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에 반지하를 없게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집주인분들의 비협조적인 이슈도 있고 해서 그 재난 이후에 한 발자국도 해결책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대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림동 지역 아파트 침수됐었던 사건들도 그렇고, 반지하 원룸 쪽에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사시는 이런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반지하 침수 이후에 사후에 대응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언론이 먼저 경각심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월에 너무 늦지 않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지석 위원님 의견 들겠습니다.

윤지석 위원

소년소녀 합창단 저는 못 봤는데 좋다고 해서 꼭 봐야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MBC를 많이 보고 의견 있으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 또 의외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MBC하면 그 노래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MBC가 좋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율 책임 품위 단합>, <힘을 내유 같이 가유>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힘을 내유 같이 가유>는 공동육아 돌봄 공동체 온마을 심포학교, 청각장애인 카페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사회적 약자나 노약자들을 우리가 힘을 내유 같이 가유라고 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너무 사회적 약자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노사 갈등 구조에서 힘을 내유 같이 가유 할 때는 갈등 구조보다는 같이 가는 단합의 모습도 필요하다. 한쪽에 청각장애인과 일반인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남녀 간의 갈등 구조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 시청자들이 40대 중반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들을 볼 때 <장날>이라는 프로그램은 지역성 구현 차원에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중적으로 봤고요. <장날> 프로그램을 보다가 TJB에서 하는 <화첩기행>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장날> 프로그램은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음식점, 똑같은 떡볶이집, 똑같은 튀김집 그런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이라는 곳은 특성이 있거든요. 논산 하면 우시장이 유명했어요. 강경은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그릇들을 죽세공품으로 만들었어요. 담양에서 죽세공품이 강경으로 오고 강경에서 충청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고 나서 대나무 만드는 시장이 불과 12년 사이에 싹 없어졌어요. 한산은 모시가 유명했거든요.

MBC의 주 시청자들이 60대 이상이거든요. <장날>에서 현재의 장을 보지만 어떤 문화의 기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장날>프로그램 시즌2가 생긴다면 과거의 시장, 어른들이 회상하고 그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렸을 때의 장터를 한번 그려주면 어떨까 얘기를 해봤습니다.

5~6월에는 후쿠시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후쿠시마를 검색하고 대전MBC를 입력하니 20개 정도 뜨더라고요. 저는 의료인으로서 전에 광우병 생각이 나거든요. 그 때 한쪽의 입장을 언론에서는 많이 대변을 했어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광우병에서 소외되기도 했는데 후쿠시마는 광우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후쿠시마는 우리와 더 근접해 있고 우리 먹거리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불안감을 부추기다 보니까 안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20개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정부 측의 입장들을 얘기를 해주다 보면 정부에서 우리 소금 많이 비축되어 있다 소금은 걱정하지 말라 하면 조금 덜 할 텐데 그것은 정부의 어떤 관계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도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처럼 너무 한쪽 얘기만 하지 말고 균형 잡힌 감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은 뉴스에서 나왔던 건 아닌데 앞으로 MBC가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사들은 빅 파이브가 우리나라 의료를 망쳤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 의료에서 뽕뽕이 돌다가 아이가 죽고 그런 일들이 빅 파이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역 의료가 상대적으로 죽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충남대학교 병원의 안과가 굉장히 유명해서 서울대에서 파견 나올 정도고 나중에 안과 교수님이 삼성의료원에 스카우트될 정도로 지역 병원들이 특성이 있었거든요. 전남대 하면 뭐가 유명했고 부산 병원은 뭐가 유명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빅 파이브로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대전 지역에 유방암, 대장암 환자들조차도 이걸 암이니까 무서워 서울로 가야 돼 해서 의료비가 상승되고 원룸에서 또는 여관방에서 보호자들이 전전해야 하거든요. 유방암과 대장암 초기 정도는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커버할 정도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갈수록 그런 수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의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악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영 부위원장

네 윤지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진희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다시 보기로만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7월에는 본방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윤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BC 연중 캠페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보기로는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건가요? 2주 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겠네요.

그래서 다시보기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이었어요. 청각장애인 카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성표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숨어 있는 노력들을 많은 시청자들이 본방을 사수하지 않더라도 다시 보거나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좋은 것들이 놓쳐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난번 산불 때문에 장마 대비한 제안을 말씀 드렸었는데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장마든 산불이든 폭염이든 간에 그런 사태가 사실 벌어지게 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행정쪽에 경각심을 줄 수 있었으면 하고요. 민선 8기 1주기가 되기 때문에 인권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기로 봤는데요. 대전MBC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소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대전 세종 충남 이 세 도시의 성격이 다르고 그 자체에서 나오는 뉴스량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균형을 찾아가실까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후쿠시마 얘기를 하셨는데 후쿠시마의 위험성을 부각을 해야 되는데 충남도는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 많아서 무조건 위험성을 부각하면 그 분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도를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충남도내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확대하고 있고 장비도 확충할 거고 횡수도 늘리고 조사 결과도 공개를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고 방사능은 여태까지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안심시키는 보도도 균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뉴스인데요. 반려견 순찰대하고 현대아울렛 재개장 뉴스입니다. 제가 반려견 순찰대 얘기를 관련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먼저 들은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봤는데요. 그 당시

위원회에 안건으로 나오면서 위원들이 궁금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정말 보도에 다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셨는지 반려견을 통해서 순찰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취지와 선별 과정 또 효과 이런 부분까지 보도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아울렛에 대해서도 지역의 큰 사건이었는데 재개장 된단니까 일단 반가웠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 또 그 상인들의 반응 그런데 약간 성급한 재개장이 될 수 있는 어떤 주변의 주차장 문제, 또 지금 재판 진행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제가 법률 관련 뉴스를 찾아보다가 느꼈던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면 6월 16일 뉴스 투데이에 나왔던 건데요. '고교 동창생간 학폭 신고건 심의 예정' 보도가 특이했던 게 뭐냐 하면 예전에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 보도는 제가 찾지는 못하겠던데 일방의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피신고 학생 측에서 이리이러 하다는 반론을 요청해 왔다 하고 그냥 전달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도할 때 이 들의 반론을 듣지 않았다는 건가 그게 의아했었습니다. 처음에 보도할 때 피신고인의 입장이 어떤 건지 확인하지 않고 일방 보도하고 그 이후에 피신고인 측에서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피신고인은 이렇대요 라고 보도하는 거는 객관성이 결여됐던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폭 사건이라는 게 진행 중일 때는 사실관계가 전부 오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잘못되게 보도될 수도 있고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어서 일단 대상들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세종 정부청사 만취 운전으로 7명 사상한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셨는데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증은 여러 번 보도가 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보도를 봤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뒤에는 그냥 간단하게 덧붙이기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 보도를 봤을 때는 이 보도를 왜 하는지를 모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여러 번 하시는 입장에서는 앞 얘기가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건 어떻게 됐냐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였어요. 왜 상고했는지 그리고 1심과 2심 형의 차이가 뭐였는지 그리고 만취해서 7명이 사상이라고 하는데 만취의 수치가 뭐였는지 그리고 일곱 명이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사망이고 여섯 명이 상해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만취로 7명이 사상인데 징역 2년이라 이렇게 잘못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게 어느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급생 7시간 폭행한 여중생들도 형사 재판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 중학생이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설립 60주년 기념식이 세종에서 열렸다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뉴스가 보도되면서 화면에 현재 소청심사위원장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종시장이 한참 나오세요. 그러다 거의 뒷부분에만 살짝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왜 저걸 이렇게 구성하셨을까 세종시장은 전 위원장이어서 그냥 나와서 축하하신 건데 그런 구성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에 대해서 회사 측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상옥 편성국장

편성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날>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 위원님들께서도 윤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즌2가 들어간다면 유념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석 위원

전체적으로는 좋았습니다

#### 이상옥 편성국장

<시시각각>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이 종료가 됐고 저희 편성국에서는 <시사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8~9년 정도 쉬고 있는데 두 달 뒤에 런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에 검토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타이틀이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세트를 어떻게 하고 지금 준비 단계 있기 때문에 약 두 달 정도 뒤에 런칭하고 다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다큐가 마땅한 게 없었는데 두 편 정도를 8~9월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셔널로드 NO 37>이라고 금산 지역 남북을 관통하는 국도입니다. 국도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은 콘텐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계의 조국>이라고 해서 조선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살며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축구 선수를 하는 안영학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하고 한 선수를 더 해서 조선적을 가지고 일본에 살고 있고 한국을 지향하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콘텐츠인데요.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것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맑음센터 지속 취재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수목원 아라홍련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작물이 아니고 라이브로 진행한 겁니다. LTE를 통해서 진행 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중간에 발생한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게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오늘의 면접'은 지역 방송 제작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인터뷰가 소개에서 들어가 있는데 현장 PD가 사실은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저연차 PD라서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걸 외부 제작이 아니고 저희 자체 제작입니다.

PD가 붙어서 직접 기획부터 제작하고 송출까지 진행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취지가 지역 취준생 청년들한테 보석같이 숨어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작은 업체들도 어떤 일을 하는 기업들인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공공기관들을 소개하는 가상 면접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추천할 만한 기업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가능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사장님께서 제안하셔서 한 달에 두 편씩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고마워유 같이가유> 올해는 <힘을내유 같이가유> 이렇게 두 개 콘셉트를 바꿔서 하고 있는데 다양한 소재들을 선정해서 선보이도록 노력하겠고요.

윤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을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 제작PD하고 유념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는 매 바뀔 때마다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 상에 다시 보기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은선 취재편집부장

오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관련한 부분하고 장마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이슈는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어서 충남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보도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 경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균형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정동 위원님께서 바닷가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조금 사기 때 멀치잡이 조업 나가시는 분들 이야기도 같이 담아서 했었고 수산업이나 김치 같은 가공업체에 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 검토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관련 보도는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 이슈나 지하 주차장에서 작년에 물이 갑자기 쏟아져서 희생자들 많이 있었던 부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하는 부분들이 이미 장마가 시작됐는데 실제로 설치된 건 아직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보도 예정이고요. 어제 그제 계속해서 장마 관련해서 보도했고 말씀해주신 산 불피해 지역들 다시 보는 것들도 지난달에 했었고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법률 관련한 뉴스들은 1심, 2심, 3심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씩 요약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2심 관련한 보도라면 2심 얘기하면서 앞에 1심은 어땠고 그리고 사건은 개요는 어땠고 이걸 계속 덧붙이다 보면 뉴스 분량이 길어져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앞에 걸 모르는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소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학폭 문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직전에 천안에서 학폭 문제로 자살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바로 직후에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왔던 거예요. 어머님한테 제보가 왔는데 딸이 그 친구랑 사귀는 관계였는데 가정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게 제보의 요지였는데 앞서 천안의 학폭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3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해서 아이가 그렇게 잘못된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예민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뤄야겠다고 판단한 건 앞선 사례가 있어서 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상대한테 확인을 안 하고 한 거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건 사실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고 이게 그냥 단순 학폭도 아니고 예민한 성추행이 결부되는 거고 그래서 당사자가 특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심성도 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해당 가해자라고 지목된 남학생 쪽에서 언중재를 가겠다고 해오면서 반론을 다뤄주면서 앞선 보도는 삭제 요청을 하는 걸로 중재가 들어와서 아마 기사를 찾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론도 동일한 기간만 노출을 하고 삭제를 하는 걸로 했고요. 언중위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바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양 당사자들에게 중재가 가능한 범위들을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행되기 전에 조정되는 단계에서 그런 정도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을 받아서 동일하게 노출한 뒤에 삭제가 될 예정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더군다나 학생들 미성년자가 가해자 피해자인 경우들은 사실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성 문제가 들어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 앞서 천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소청 심사위 행사 편집 부분은 제가 편집 쪽에 일단 문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나 현대아울렛 기사들, 천안역 공익 제보를 통해서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표 간사  
오늘 서주석 전략기획실장이 참석을 못했는데요. 만약에 참석했으면 답변을 드렸을텐데... 합

창단 관련해서 노래가 좋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학년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귀여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익 제보 관련해서 방송을 했으면 밑에 답글 한번 다뤄줬으면 어떠냐는 부분도 저희도 고려를 했는데 기록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또 캠페인관련해서 이진희 워런님 말씀해 주신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작품성이 있다면 자체 논의를 통해서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AM라디오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의 휴지 기간을 갖고 5월 8일에 종료를 했습니다. 현재 AM방송이 사라진 게 아니라 AM은 진폭 변조라고 해서 초창기에 765khz로 방송했었는데요. 잡음이나 신호 같은 게 많이 안 좋고 해서 표준FM으로 같이 방송을 하다가 이번에 방송위에서 AM은 제1FM으로 FM은 제2FM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FM은 주파수 변조이기 때문에 전달 지역이 달라서 서북부 지역은 91.3이고 다른 지역은 93.7, 그리고 대전 지역은 92.5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인프라 국장님께 물어보시면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수진 인프라국장

자세한 설명은 이은표 국장님께서 잘 해주셨고요. 없어진 게 아니고 똑같이 방송하던 건데 이 논의가 방송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방송을 하는데 주파수 때문에 송신소를 이종으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 2009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서 MBC뿐만 아니라 KBS도 똑같이 AM 중파 방송과 단파 방송을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KBS도 힘들었고 저희도 힘들었는데 그런 논의가 나와서 765khz 주파수로 AM을 듣는 청취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없애는 게 어떠냐 해서 완전히 없애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사이트는 남겨놓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자 라고 계속 논의해오다가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

그러면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6개월간의 휴지 기간을 갖고 그 기간 동안에 불만 의견이 많이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세 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러면 뭘로 들어요?' 'AM방송국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정도 두세 건밖에 없었고 모두 방송위에 제출을 했고 폐국해도 이상이 없겠다고 하는 결정에 따라서 지난 5월 8일날 폐국이 된 겁니다.

원래 매체가 AM, 표준FM, 음악FM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뀌서 기존 AM방송을 대신하던 표준FM은 제1FM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 음악FM을 담당하던 97.5MHZ는 제

2FM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휴지 기간 동안에 시청자분들한테 라디오뿐만 아니라 TV에 흘림자막으로 계속 공지를 해왔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지금 수정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표 간사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환균 사장

2008년부터 논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AM의 주파수 특성상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지더라도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의 재난이라든가 위기 시에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있어야 한다 라는게 정부 입장이 그거였고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송신소 운영이라든가 장비 노후화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취자들이 AM으로 듣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AM을 듣는 청취자들이 없다는 게 방통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강력한 배경이 된 것 같아요.

이은표 간사

부연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장래속 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못을 할 때가 많은데요.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쓰잖아요. 시청자 게시판을 담당하는 직원이 여기 보면 이재근 국장님이 접수하고 있던데요. 여기 보면 잘못했다고 지난번에도 아나운서가 댓글로 달았고 이번에도 또 아나운서가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자 게시판 담당자가 해당자에게 물어서 답변을 제3자 입장에서 해주면 이 아나운서가 자존감이 덜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혼낼 때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직원이 잘못해도 제3자가 답변을 해주면 유지은 아나운서도 자존감도 높아지고 회사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김환균 사장

그건 한 번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할게요. 아마도 당사자들이 올리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 시청자 게시판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올리게 되면 이게 제대로 전달된 거야 어쩐 거야 하는 것도 있어서 우리는 충실하게 전달을 했다.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할 만합니다.

이은표 간사

제가 설명드리면요 특정 의견이 올라오면 저희는 ‘네가 해’ 라고 하지 않고요. 본인도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남유식 아나운서와 이번에 유지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환균 사장

어쨌든 보시기에 불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장래속 위원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미안할 텐데. 올리는 심정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이상입니다.

이은표 간사

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오늘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주신 박주영 부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김환균 사장님 말씀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박주영 부위원장

애정을 갖고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또 이렇게 면전에서 직접 설명 들을 수 있어서 참 유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MBC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균 사장

오늘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에 일어난 재난이 우리 지역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걸 빨리빨리 대비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라든가 위기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 시청자들의 재산과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제1의 가치거든요. 어느 방송사나 마찬가지로 점점 더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는 계열사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다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만한 재난방송을 해야겠다 해서 따로 각 계열사에 장비를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요성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올해도 장마철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찌 됐든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전MBC를 즐겨보시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시청자들이 마음 편하게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고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정미 교수님께서 왜 김영옥이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 별로 볼 만한 것이 없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덜컥 했어요.

불 만한 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마치기에 앞서서 7월 일정 잠깐 협의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대로는 저희가 7월 25일 화요일에 개최하는데 여름휴가 성수기라서 혹시 조정 의견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당초 계획대로 7월 25일에 개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